

제 261호 · 2014년 6월 18일

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길광수 감리위원

KMI

국제물류위클리

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

| CONTENTS |

물류 정책·사업동향

1. 중국, 보건의료 물류 시장 급성장
2.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의 구조 개편 강화
3. 중국 물류기업, 콜드체인물류 잠재력에 주목
4. UPS, 미국 New Hampshire 지역 신규 물류센터 운영

물류 시장동향

1. 일본 물류기업들 운전기사 공유 협력 추진
2. PSA, 중국 렌원강에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 개장

공지사항

1. 2014년 1차 해외사업 투자설명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물류정책 · 사업동향

□ 중국, 보건의료 물류 시장 급성장

- 중국이 도시화, 중산층의 증가 등으로 향후 1년 내지 1년 반 안에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보건의료 물류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음
 - 이는 회계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인 KPMG의 최근 보고서에서 나온 것으로 이 보고서는 성장하는 중국의 보건의료 물류시장은 세계 보건의료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물류 수요가 늘 것이라고 지적했음
 - 예를 들어, 지난 달 Bayer HealthCare는 지난 달 심혈관 및 당뇨병 치료제 생산량 증가에 따라 포장 및 물류공장을 확대하기 위해 베이징에 1억 3,8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며, Johnson & Johnson의 제약 전문기업인 Janssen은 시안 지역 약 2,600만 m² 부지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2~3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Merck은 당뇨병 치료제 생산시설 건립을 위해 상해 지역에 약 1억 7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 더욱이 중국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개혁으로 현재 전체 국민의 약 95%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고, 가처분소득의 증가와 도시화 등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또한 2050년에 가서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약 2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돼 이 같은 의료보건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Transport Intelligence(TI)에 따르면, 현재 중국 내 보건의료 물류시장은 Sionpharm, Shanghai Pharma, China Resources 등 국영기업들이 약 20%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음¹⁾
 - TI는 중국의 보건의료 시장에 13,000여개의 물류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다국적 기업들의 참여는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음
 - 예외적으로 Cardinal Health China(CHC)와 DKSH가 중국 보건의료 물류시장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은 대규모 물류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1급 물류기업들임
 - CHC는 2010년에 Yong Yu와 Kinray 업체를 인수하여 중국에 진출했으며, 그 이후 적어도 6개 이상의 중국 물류기업을 인수해 네트워크 확대를 도모했음
 - 스위스 취리히에 본사를 두고 있는 DKSH는 1921년 상해지역의 무역회사를 인수하여 진출한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한편 DHL의 공급사슬부문 Maxwell 부사장은 중국의 보건의료 시장 확대에 따라 이 같은 대형 외국계 기업들의 중국내 1급 및 2급 물류기업 인수가 늘 것이라고 지적했음

1) Transport Intelligence, 「Global Healthcare 2014」, 2014.

- 다만, 그는 의료보건 물류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국가등급의 3PL 자격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중국의 규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각 지방마다 자격증 제도가 다르고, 어느 경우는 외국계 기업의 참여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음

자료 : www.joc.com, 2014.6.6.

김태일 부연구위원 (☎ 02-2105-2755, ktizorro@kmi.re.kr)

□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의 구조 개편 강화

- 컨테이너 선박 및 해운 얼라이언스(Alliance)의 초대형화가 항만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최근 함부르크항의 유로게이트 터미널에 기항한 CSCL *Le Havre*호는 11,600TEU의 화물을 한 번에 처리한바 있음
 - 또한 앤티워프항의 경우 MSC가 전체 물동량의 약 50%인 4.5백만TEU를 처리하고 있으며, P3 얼라이언스 기준으로는 앤티워프항 물동량의 대부분을 점유함
 - 선박의 항차 당 평균 처리 물동량도 12,000TEU급 선박은 약 4,800TEU인, 18,000TEU급 선박의 경우에는 약 7,200TEU로 증가했음
- 이러한 선박과 얼라이언스의 초대형화에 따른 연쇄효과(Knock-on effect)로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들은 물리적 및 소유구조 측면에서 구조 개편을 단행중임
 - 우선 물리적 측면에서는 앤티워프항의 경우 증가하는 항차 당 물동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내하수송 체계를 정비하고, 물류시설을 확충하고 있음
 - 소유구조 측면에서는 상호 공동 투자 및 지분의 공동 소유 등을 통해 공동 대응하고 있음
 - APM Terminals는 MSC의 자회사인 TIL(Terminal Investment Limited)과 산토스항(Santos), 카야오항(Callao), 마르세이유-포스항(Marseilles-Fos)을 공동 소유하고, AP Moller 그룹은 China shipping 그룹의 터미널 운영회사인 CSTD(China Shipping Terminal Development)와 협력 MOU를 체결했음
 - HPH도 홍콩의 ACT(Asia Container Terminal) 지분 40%와 20%를 각각 Cosco pacific과 CSTD에 매각했으며, ICTSI도 나이지리아 Lekki 터미널의 지분 25%를 CMA Terminals에 매각하는 등 지분의 공동 소유 및 공동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이러한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간의 협력 확대가 선박 및 얼라이언스의 초대형화에서 기인한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의 도전 및 리스크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임
 - 따라서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들은 이러한 도전 및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우리나라도 컨테이너 선박 및 얼라이언스의 초대형화에 실질적이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글로벌 운영사를 조기에 육성하고 글로벌 공동 대응 체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해외 항만에 대한 투자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 해야 할 것임

자료 : Drewry Container Insight, 2014.6.

김근섭 부연구위원 (☎ 02-2105-2846, gskim@kmi.re.kr)

□ 중국 물류기업, 콜드체인물류 잠재력에 주목

- 최근 들어 중국내 콜드체인시장이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광저우 21세기 비즈니스 헤럴드’의 보도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신선식품의 전자상거래는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콜드체인물류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선전에 소재한 배달전문 회사인 SF Express는 자사의 콜드체인물류와 연계된 온라인 쇼핑 서비스인 ‘Heike’를 개시했는데, 온라인 식품부문인 SF Best의 Li Dongqi 대표에 따르면 콜드체인물류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파트너사를 통한 주문이 늘어나는 등 사업이 가속화 되고 있다고 함
 - 그밖에 다른 기업들도 신선식품부문의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회사인 알리바바의 공동설립자이자 회장인 Jack Ma씨를 비롯한 투자자들에 의해 설립한 Cainiao Network Technology는 최근 베이징과 광저우에 24시간 콜드체인 물류 서비스 제공 계획을 발표했음
 - 지난달 아마존 차이나는 중국시장 진입 후 기업의 첫 전략투자로 상하이소재의 신선식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Yummy77에 2천만 달러 상당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음
-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과 대도시의 성장은 콜드체인물류의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 작년 중국내 콜드체인물류 시장 규모는 2천 6백만 톤으로 전년대비 36%가 성장했는데, 앞서 언급한 온라인 기업 SF Best는 2013년 한 해 동안 6천 380만 달러 규모의 판매고를 올려 2012년 대비 536%나 되는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몇몇 분석가들은 중국 콜드체인사업이 매년 20%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향후 5년 동안 추가로 3천만 톤에 달하는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와 같은 중국 대도시들은 지난 한해 30% 가까이 성장했으나 콜드체인이 국가 물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9% 수준으로, 85%에 달하는 미국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 비하면 냉동 창고와 트럭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중국 야채배달 기업의 CEO인 Tang Zhong씨에 따르면 신선제품은 콜드체인 운송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인프라의 부족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신선제품 유통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언급함
 - 그밖에 중국내 일부 콜드체인업체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트럭 냉장고의 전원을 끈 상태로 운송한 후 목적지에 이르러 적정 온도를 설정하는 등의 일부 문제 해결도 필요함

자료 : www.wantchinatimes.com, 2014.6.14.

이홍원 연구원 (☎ 02-2105-2897, hongwon@kmi.re.kr)

□ UPS, 미국 New Hampshire 지역 신규 물류센터 운영

- United Parcel Service(UPS)는 미국의 항공기 엔진 제작회사 Pratt & Whitney와 거래 확장의 일환으로 미국 New Hampshire(뉴햄프셔) 지역에 60만제곱피트 규모의 동북아물류센터(Northeast Logistics Center, NELC)를 구축할 계획임
- 신규 시설은 제조, 글로벌 엔진 조립, 제품 테스트 장소 제공 및 Pratt & Whitney의 부품 공급을 위한 중앙 물류 센터의 역할을 할 것임
- UPS는 Pratt & Whitney의 부품 수령, 보관, 제조, 조립 키트 구축, 포장, 재고관리 및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신규 물류센터는 2015년 6월 중 개장할 예정임
- Pratt & Whitney 엔지니어링 및 운영담당 Danny Di Perna 부사장은 "Pratt & Whitney의 물류공급 업체인 UPS는 PurePower engine 라인의 성공적인 확대를 비롯하여, 회사의 핵심 업무(제조, 조립 및 항공기 엔진 시험 등)에 집중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고 언급함
 - * PurePower engine : 신형 항공기 전용으로 제안된 차세대 엔진
- UPS는 10년 전부터 Pratt & Whitney에 물류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파트너십을 통해 화물 운송, 국제 항공화물, 지상 운송 및 통관 솔루션 등 서비스 영역을 점차 확장해 왔음
- UPS는 UTC Supplier Gold 인증서를 취득하고, 애틀랜타를 비롯한 미국 내 4개의 물류센터를 통해 Pratt & Whitney에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자료 : 3pl4pl.logistics-business-review.com, 2014.5.21.

손보라 연구원 (☎ 02-2105-2914, bora62@kmi.re.kr)

물류시장동향

□ 일본 물류기업들 운전기사 공유 협력 추진

- 경기 회복으로 화물트럭 운전기사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일본 물류기업들이 운전기사 공유를 추진하고 있음
 - Nikkei Report에 따르면 일본의 야마토 운수(Yamato Transport), 세이노 운수(Seino Transportation) 및 기타 6개 업체가 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전기사 공유 협력에 대한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음
 - 일본 전국물류기업협회 또한 화물트럭 운전기사 공유 사업을 주도할 예정이며, 사가와 익스프레스(Sagawa Express), 일본통운(Nippon Express) 등의 운송업체 참여도 유도할 예정임
- 이러한 형태의 협력으로 물류기업들은 비용상승을 억제하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현재 일본에서는 국내 화물운송의 90%가 트럭으로 운송되고 있으며, 4월~7월 사이에 약 60%의 일본 운송업체들이 운전기사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뿐만 아니라 일본은 트럭 운전기사 고령화 문제에도 직면해 있음
- 운전기사 공유 협력은 중소형 도시를 포함하는 노선에 적용될 예정임
 - 이들 노선은 일반적으로 회항화물 확보가 어려워 효율적인 화물트럭 이용이 어려움

자료 : www.cargonewsasia.com, 2014.6.13.

김은우 전문연구원 (☎ 02-2105-2828, hisgrace@kmi.re.kr)

□ PSA, 중국 뤰원강에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 개장

- LYG(Lianyungang)-PSA Container Terminal(LPCT)이 지난 6월 5일 개장되었음
 - LPCT는 길이 1,700m, 수심 16.5m의 선석에서 수퍼 포스트 파나막스급 선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쿼리 크레인(23열로 적재된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는 크레인)이 투입되며, LPCT의 개발이 모두 완료되면 연간 280만 TEU를 처리할 수 있음
 - LPCT는 중국에서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로 경제규모가 큰 산동성과 장쑤성의 배후단지로부터 증가하고 있는 컨테이너 운송을 보다 용이하게 해 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중국의 중·서부 지역과 뤰원강항을 잇는 철도를 활용한 복합운송 네트워크는 유럽과 미국, 그리고 아시아 여러 지역과 해상운송과도 연결되어 있어, 향후 중·서부 지역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 많은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 : www.internationalpsa.com, 2014.6.5.

이홍원 연구원 (☎ 02-2105-2897, hongwon@kmi.re.kr)

□ [공지] 2014년 1차 해외사업 투자설명회

- 일시 : 2014. 7. 4(금) 13:30 ~ 17:5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 주최 : 해양수산부
- 주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 프로그램

시간	주요내용	비고
13:30~14:00	등록 및 자료 배포	
	개회식	
14:00~14:05	개회사	김성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14:05~14:10	환영사	전기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1세션	
14:10~14:40	브라질 Petrocity 오일·가스 복합단지 항만 개발·운영 사업	Jose Roberto Barbosa da Silva, Chairman and CEO of PetroCity Portos S.A (호세 로베르토 바르보사 다 실바 회장, 페트로시티 포르투스 S.A)
14:40~15:00	질의응답	발표자
15:00~15:30	브라질 수아페항 터미널개발·운영 사업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연구실장
15:30~15:45	질의응답	발표자
15:45~16:00	네트워킹	
	2세션	
16:00~16:30	중국훈춘포스코현대국제물류단지 개발사업	연제성 훈춘포스코현대국제물류유한공사 대표
16:30~16:50	질의응답	발표자
16:50~17:20	적도기니 선박 및 해양플랜트 수리조선소 개발사업	김진홍 대영엔지니어링 상무
17:20~17:40	질의응답	발표자
17:40~17:50	종합 정리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연구실장

* 동시통역제공

- 참가신청 : 2014년 6월 18일(수)~7월 3일(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별첨 신청서를 이메일(bora62@kmi.re.kr harimy@kmi.re.kr)로 송부
- 참가문의 : 손보라 연구원(☎ 02-2105-2914, bora62@kmi.re.kr)
이하림 연구원(☎ 02-2105-2954, harimy@kmi.re.kr)

※ 본 사업 설명회는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선착순 참가접수를 받을 예정이므로, 관심 기업은 위의 이메일로 반드시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차 해외사업 투자설명회』 참가신청서

■ 참가자 정보

회 사 명	
-------	--

참가자명(1)		직 위	
부 서		이메일	
전화(사무실)		전화(휴대폰)	

참가자명(2)		직위	
부 서		이메일	
전화(사무실)		전화(휴대폰)	

※ 참가자가 더 있을 경우 칸을 만드셔서 참가자 정보를 기재 바랍니다.

※ 기타 : 참가비 무료, 선착순 접수

※ 참가를 희망하실 경우 동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이메일로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 2014.7.3(목) 18:00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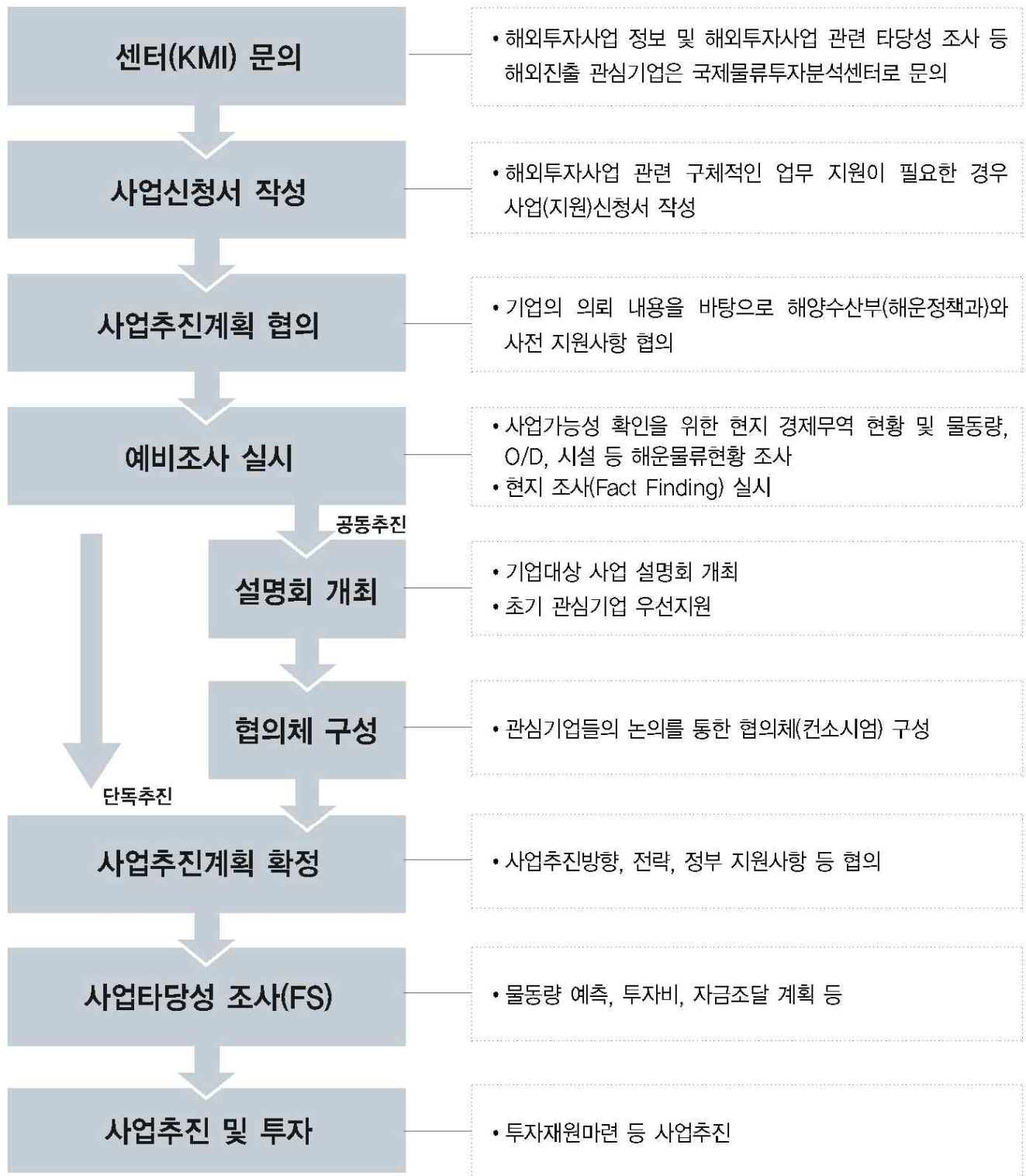
－ 신청서 송부방법 : E-mail (bora62@kmi.re.kr, harimyi@kmi.re.kr)

※ 문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손보라 연구원 : 02-2105-2914 / 이하림 연구원 : 02-2105-2954)

한 국 해 양 수 산 개 발 원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